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평양시 사동구역 장전남새전문협동농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소개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영광의 일터에서 일하는 크나큰 긍지를 심장깊이 간직하고 헌신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가며 여러가지 남새를 많이 생산하고있는데 대하여 치하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새로 건설 및 개건한 남새온실들을 돌아보시면서 생산실태를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지금 무슨 남새를 재배하는가, 통풍과 관수체계를 어떻게 세웠으며 온실남새종자보장체계가 어떻게 서있는가를 하나하나 물어주시며 남새농사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당에서 남새온실을 대대적으로 건설하고 장려하라고 하는것은 우리 인민들이 한겨울에도 오이, 도마도, 썩갯, 부루와 같은 신선한 남새를 늘 먹게 하자는데 있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온실남새생산에서도 본보기를 창조하고 그것을 일반화해야 성과를 확대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장전남새전문협동농장을 온실남새생산의 전형단위로, 온 나라의 본보기농장으로 꾸리자는것이 당중앙의 결심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평양시당위원회를 통하여 장전남새전문협동농장을 전국



의 본보기농장으로 꾸리는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다시 보고받고 우선적으로 해결해주도록 조치를 취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모든 부

문, 모든 단위들에서 남새온실건설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인민들의 식생활을 풍족하게 하기 위한 조선로동당의 방침을 빛나게 실현하는데 적극 이바지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기상수문국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종합예보실, 국내통신실, 국제위성통신실을 비롯한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기상관측과 예보사

업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지금 기상관측사업이 현대화, 과학화되지 못한 결과 오보가 많다고 하시면서 기상관측과 예보사업을 잘하여야 이상기후현상에 의한 재해로부터 인민들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고 농업과 수산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들에서 자연피해를 제때에 막을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기상기후조건을 과학적으로 밝히며 일기예보에 필요한 자료와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요구하는 기상기후자료들을 제때에 정확히 보장하자면 기상수문국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날씨가 사람들의 생활과 건강, 교통운수 등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방법으로 신속하면서도 친절하게 통보해주기 위한 사업도 잘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리 나라의 자연지리적특성과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각종 관측망들을 잘 배치하고 기상관측설비들의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기상수문국의 일군들과 연구사, 예보원들이 맡은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기상관측과 예보를 잘하기 위한 사업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침으로써 조선로동당과 인민의 기대에 보답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동해안전방초소를 지키고있는 려도방어대를 시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동해안전방초소를 지키고있는 려도방어대를 시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지휘관들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며 나무숲이 울창한 섬을 바라보니 정말 기분이 좋다고, 방어대에서 나무를 많이 심음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였다고 치하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일매지게 닭아

는 병영구내길을 걸으시며 휴양소에 들어서서는것만 같다고 기뻐하시였고 싱싱하게 자란 살구, 감을 비롯한 갖가지 과일나무들을 보시고서는 당중앙의 의도에 맞게 수림화, 원림화, 파수원화를 훌륭히 실현하였다고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현지지도표식비와 혁명사적교양실, 연혁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방어대

의 전투임무수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방어대지휘관들과 군인들이 총포성이 울리지 않을 때에도 늘 적들과의 판가리결전을 생각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려도방어대의 싸움준비완성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명철하게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군인회관을 돌아보시면서 군인들에 대한 정치사

상교양사업실태를 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려도방어대는 싸움준비의 견지에서 불침점함, 군인생활의 견지에서는 나무랄데 없는 자랑할만 한 멋쟁이섬이라고 거듭 만찬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려도방어대가 당중앙에서 좋다고 한것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훌륭히 해놓았다고 하시면서 이곳 부대는 당의 군사정책이 가장 정확

히 집행되고있는 본보기단위, 전군이 따라배워야 할 전형단위라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공화국영웅인 방어대장 천재권동무와 부대정치위원에게 로령영웅칭호를 수여할것을 친히 제의하시였으며 부대정치위원에게는 현지에서 최고사령관의 명령으로 직접 한등급의 높은 군사칭호를 수여해주시였다.

본사기자

역사적인 6. 15공동선언이 채택된 때로부터 열네번째 년륜이 새겨져진다.

사설

6. 15의 기치높이 자주통일의 한길로 힘차게 나아가자

돌이켜보면 주제

89(2000)년 6월 민족분열사상 처음으로 되는 북남수뇌상봉이 열리고 거기에서 우리 민족끼리 기본리념으로 하는 6. 15공동선언이 채택된것은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사에 금문자로 아로새겨진 경이적인 사변이었다.

6. 15공동선언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것을 온 세상에 엄숙히 선포한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이다. 서로 갈라져 대결하던 북과 남사이에 대화와 협력의 넓은 길을 열어준 6. 15공동선언이 마련됨으로써 우리 겨레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민족의 주체적 힘, 대단결의 위력으로 하루빨리 이룩할수 있는 불멸의 지침을 받아들일수 있었다.

6. 15공동선언의 발표로 분열의 어둠이 질게 드리웠던 이 땅에 민족적화해와 단합, 자주통일의 새시대가 펼쳐지고 북남관계와 조국통일운동에서는 지난 시기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놀라운 전변들이 이룩되게 되었다. 북과 남

사이에 다방면적인 대화와 접촉이 이루어지고 민족공동의 통일행사들이 성대히 진행되었으며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가 활발히 벌어졌다. 국토의 허리를 가로지른 분열의 장벽을 뚫고 철도와 도로가 이어지고 하늘길, 바다길이 열리는 장쾌한 사변들도 일어났다.

북남관계와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일대 전환적국면을 펼친 6. 15공동선언의 채택은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숭고한 애국애족의 뜻과 확고부동한 자주통일 의지, 탁월한 령도가 낳은 고귀한 결실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민족자주의 원칙과 애국애족의 정신으로 일관된 선군정치로 닦쳐드는 전쟁위험을 막고 겨레의 운명을 지켜주시였으며 역사적인 평양상봉을 마련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평양상봉의 뜻깊은 나날들에 회담을 정력적으로 현명하게 이끄시어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핵으로 하는 6. 15공동선언을 탄생시키시고 온 겨레에게 커다란 기쁨과 자주통

일에 대한 신심을 안겨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6. 15공동선언을 리행해오는 나날에 역사적인 10. 4선언도 마련하시어 조선반도의 평화와 민족공동의 번영을 이룩하고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는데서 중대한 계기를 마련해주시였다. 실로 온 겨레가 지지하고 받드는 민족통일대강인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을 마련해주시고 자주통일시대를 이끌어오신것은 그이께서 력사와 민족앞에 쌓아올리신 거대한 업적이다.

오늘 우리 겨레앞에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견지하고 민족공동의 통일운동을 려이 집전한 남조선보수당국의 악랄한 동족대결책동과 전쟁소동으로 하여 엄중한 도전에 부딪히고있다. 남조선의 전 《정권》은 집권초기부터 조국통

일의 대강이며 리정표인 북남공동선언들을 전면부정하였으며 북남관계를 극도의 대결과 전쟁국면으로 몰아갔다. 리명백당의 무모한 동족대결과 북침전쟁책동을 이룩하고 파국상태에 처한 북남관계는 전 《정권》의 대결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는 현 남조선 《정부》에 의해 여전히 침체상태에 빠져있다.

지나온 나날들과 오늘의 현실은 우리 민족끼리를 근본리념으로 하는 6. 15공동선언을 고수하고 리행하는것이 민족의 살길이고 평화번영과 통일의 길이라는 력사의 진리를 똑똑히 깨우쳐주고있다.

우리 겨레는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자주통일의 길로 힘차게 전진해나가야 한다. 력사적인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은 우리 겨레가 통일의 날까지 변함없이 높이 들고나가야 할 불멸의 조국통일대강이다. 6. 15공동선언발표후 북남관계발전과 조국통일의 길에서 이룩된

경이적인 성과들은 북남공동선언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남김없이 파시하였으며 선언이 가리키는 길로 나아갈 때 우리 민족이 그처럼 바라는 통일도 성취되고 평화와 번영도 이룩될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확증하였다.

북남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은 우리 민족끼리이며 이것은 민족공동의 통일리념이다. 해외의 온 겨레는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 맞게 투철한 자주정신을 가지고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민족의 자주성, 나라의 통일은 민족중심의 립장에 확고히 서서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첫차리에 놓고 그것을 귀중히 여기며 적극 옹호해나갈 때 실현될수 있다.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사대와 외세의존을 철저히 반대배격하여 민족적단합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민족의 자주통일지향에 역행하면서 겨레의 머리위에 핵전쟁의 검은 구름을 몰아오고있는 반통

일매국세력의 동족대결과 북침전쟁책동을 짓부셔버려야 한다. 이른바 《신프로세스》를 자기의 《대북정책》으로 들고나온 남조선의 현 《정권》은 동족대결을 《원칙》으로 떠들어대면서 북남관계개선과 민족의 화해와 단합에 장애만을 조성하고있다.

외세와 야합하여 남조선의 하늘과 땅, 바다에서 북침전쟁연습에 매일같이 미쳐달뛰는가 하면 《통일대박론》이나 《드레즈덴선언》과 같이 동족대결홍심으로 가득찬 반통일오설만을 퍼뜨리고있는 남조선보수당국의 대결책동은 온 겨레의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한편으로 남조선당국은 진보단체들과 통일운동세력을 《중북세력》으로 매도하며 살벌한 탄압의 광기를 부리고있다. 이것은 어떻게 하나 남조선인민들의 통일운동을 가로막고 6. 15지시세력을 말살하려는 범죄적책동의 산물이다.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는 6. 15의 기치밑에 일치단결하

여 반통일전쟁세력을 단호히 매장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가야 한다.

해내의 각계층 단체들과 인민들은 굳게 련대하여 북남공동선언들을 지지옹호하고 리행해나가기 위한 전민족적인 분위기를 적극 고조시켜나가야 한다. 통일운동단체들사이의 련대, 련합을 강화하고 남조선에서 반통일파악법인 《보안법》을 철폐시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을 벌려야 한다.

오늘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투쟁의 진두에는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서계신다. 조국통일의 앞길에 의연 험한 가시밭길이 놓여있지만 천출위인의 탁월한 령도가 있고 불멸의 통일대강들이 있으며 장성강화된 통일애국력량이 있어 통일에국위업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력사적인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의 기치높이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위업을 하루빨리 성취하고야말것이다.

7 천 만 의 좌 우 명 - 우 리 민 족 끼 리

2000년 6월 온 겨레의 통일열망을 활화산처럼 분출시켰던 6.15 북남공동선언이 발표된 때로부터 어언 열네해가 흘렀다. 북남관계를 불신과 대결에서 화해와 협력으로 바꾸고 자주통일의 새 시대를 펼친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의 진수는 우리 민족끼리이다.

세월은 흐르고 북남관계는 대결의 과거로 되돌아갔지만 우리 민족끼리는 오늘도 통일의 크나큰 원동력이 되어 겨레의 가슴가슴을 쿵쿵 울려주고있다.

* * *

조국통일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필생의 위업이고 절절한 념원이었다. 그이께서 헤쳐오신 험스러운 혁명령도사의 갈피마다에는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해 바치신 거룩한 자욱이 아로새겨져있다.

지금도 역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이 발표되던 14년전의 그날을 생각하는 겨레의 가슴가슴은 이름할수 없는 격동으로 설레인다.

돌이켜보면 통일을 위해 겨레는 눈물도 많이 흘리고 애국의 후더운 피와 땀도 수없이 바치었다. 그러나 불신과 대결의 두터운 얼음장은 좀처럼 녹을줄 몰랐고 분열의 역사는 반세기이상이나 흘렀다.

그러던 우리 민족에게 2000년에 마련되고 태어난 역사적인 북남수뇌상봉과 6.15공동선언은 자주통일에 대한 큰 희망과 굳은 신심을 안겨주었다.

그때 삼천리강도가 총격과 기쁨으로 들끓었다. 세계가 조선민족에게 박수갈채를 보냈다.

6.15공동선언의 정수는 우리 민족끼리이다.

우리 민족끼리가 얼마나 정당한 통일리념인가 하는것은 6.15이후의 격동적인 사면들이 잘 말해준다. 끊어졌던 국토와 민족의 혈액이 다시 이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북과 남을 대항하며 《조국통일》, 《우리는 하나다》라는 합성으로 강산을 진감시켰던것은 우리 민족끼리가 안아온 자랑스러운 열매였다.

우리 민족끼리는 조선반도에 민족자주의 새 역사를 펼치였다.

원래 우리 민족이 갈라져 살게 된것도 외세때문이었고 통일의 주요방해자도 침략적인 외세이다.

하지만 남조선의 력대 위정자들은 외세의존과 동족대결책동에만 매달려 통일의 전도를 어렵게 했다.

북남사이에서 나라의 통일을 외세의 간섭이 없이 자주적으로, 민족대단결을 도모하는 원칙에서 평화적으로 이룩할데 대한 조국통일3대원칙을 명시한 7.4공동성명이 발표되었을 때에도 당시 남조선집권세력은 《미국은 외세가 아니다.》고 하면서 《대화있는 대결》, 《대화있는 경쟁》을 제창하여 민족의 통일열망에 찬물을 끼얹었다.

그러나 우리 민족끼리의 통일은 선언이 울려나오으로써 북남관계는 자주통일의 새 시대를 맞게 되었다.

당시 남조선의 《경향신문》은 이렇게 썼다.

《6.15남북공동선언의 채택으로 남북은 새 질서를 맞이하게 됐다. 반목과 대립, 대결로 지나온 불행과 과거 역사를 떨치고 화해와 협력, 나아가 통일로 이어지는 디딤돌을 마련했다. 단순히 정상간의 만남을 넘어 통일로 가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에 대한 합의함으로써 《한》반도지도를 바꾸어놓은 측면도 지적된다.》

자주의 기상이 확확 뿜어져나오는 우리 민족끼리가 있어 외세의 간섭을 뛰어넘어 민족문제를 우리 손으로, 우리 민족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자주적인 북남대화의 새 기원이 마련되게 되었다.

6.15이후 2007년 6월까지 북남사이에는 21차례의 상급회담과 40여차례의 경제협력추진위원회 회의 및 각 부분별 분과회의와 실무접촉 그리고 10여차례의 군사당국자들 사이의 회담 및 실무접촉을 비롯하여 100여차례의 회담과 접촉이 진행되고 여기서 광복할만 한 합의들이 도출되었다.

이 나날들은 우리 민족끼리 서로 존중하고 힘을 합치면 못해낼 일이 없으며 통일도 능히 달성할 수 있다는것을 온 겨레에게 확신시켜준 잊을수 없는 나날들이었다.

우리 민족끼리는 오랜 세월 슬픔과 꿈에 물젖어있던 남쪽사회에 자주의 열풍을 몰아왔다.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후 남녘의 민심은 북으로 쏠리고 위대한 장군님의 자주정치를 따르는 열망이 사회 각 곳에서 분출하였다.

광주와 부산, 서울의 대학가들에는 북이 아닌가 착각할 정도로 조국통일3대원칙을 비롯한 아버지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자주통일노선과 방안들을 학습하는 학생들로 차넘치고 곳곳마다 《자주의식으로 무장해 외세를 배격하고 북남화해 이룩하여 통일을 앞당기자》는 구호들이 나붙었다.

대학가뿐이 아니었다. 도시와 농촌 등 남조선 각지에서 주민들은 자주정치가 실시되는 북에 대하여, 장군님에 대하여 이야기하



6.15북남공동선언에 서명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 2000년 6월

고 애곡과 추모의 심정들을 토로 하였다.

2002년 나어난 두 녀학생을 장갑차로 깔아죽이고도 《무죄》를 선언한 미국의 만행에 격분하여 온 남녘에서 타오른 대중적인 반미초봉시위도 그 근거에는 6.15공동선언, 우리 민족끼리가 안아온 남조선인민들의 자주주의식이 놓여 있지 않았는가.

참으로 우리 민족끼리가 있어 친미와 애국, 굴종과 반통일의 망령으로 어두웠던 남조선에 자주의 해빛이 비쳐들게 되고 온 겨레는 자주통일의 길로 더욱 힘차게 내달릴수 있게 되었었던것이다.

우리 민족끼리, 이는 생각만 해도 가슴부듯해지는 생강단합의 기치이고 화해와 협력의 기치이다.

반만년 오랜 세월 한교를 이어온 같은 민족이면서도 사상이 달라 서로 불신하고 제도도 사는 곳이 달라 서로 적대하고 대결해 오지 않으면 안되었던 우리 겨레였다.

그러나 6.15가 세상을 바꾸었다. 사람들의 마음을 달라지게 했다. 사상과 리념이 다른 북과 남의 겨레가 뜨거운 동료애로 만나고 얼싸안으며 뜻과 정이 통하고 하나로 합쳐지기 시작한것은 우리 민족끼리가 가져온 감동적인 현실이었다.

북과 남, 해외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 민족끼리가 펼친 뜨거운 상봉의 무대에서 서로 만나 감격과 기쁨의 눈물을 흘렸으며 통일행사들이 련이어 벌어진 평양과 서

수, 금강산과 제주도, 대구, 부산, 인천의 낮과 밤들은 통일열기로 달아올랐다.

2005년 6월 15일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된 6.15공동선언발표 5돐 기념 민족통일대추진행사는 분렬사상 처음으로 북남의 당국대표들도 참가하여 당국과 민간모두가 통일의 주역이 되고 통일운동에 거족적으로 떨쳐나섰던 6.15시대의 감동적인 현실의 축도였다.

겨레모두가 마을과 마을을 합칠 때 통일의 배는 그 어떤 암초도 물거품처럼 깨지며 앞으로 힘차게 전진할수 있다는 밝은 희망이 대추진장에 넘쳐흘렀었다.

그때만이 아니었다.

우리 민족끼리를 높이 웨치며 나라가 분열된 이래 처음으로 북남로동자통일행사와 북남농민통일행사로 열리고 북남청년학생통일대회, 북남녀성통일대회 그리고 북남교육자대회와 민족작가대회를 비롯한 북과 남의 계층별단체들의 통일행사들이 련이어 열린 온 삼천리를 통일의 도가니로 뚫게 했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라의 통일을 앞당겨오자는것이 어느 통일행사장에서나 울려나온 목소리들이었다.

남조선의 《한겨레》신문이 《6.15남북공동선언발표이후 2004년 5월말까지의 기간에 북에서 남북을 방문한 인원은 6.15남북공동선언발표이전까지의 10년간에 비해 5배, 같은 기간에 남쪽에서 북쪽을 다녀간 인원은

금강산관광객을 빼고 4.5배 늘어났으므로 된다.》고 전한것처럼 북남사이에서 사람들의 래왕도 활발히 벌어졌다.

2007년에는 분열의 장벽을 뚫고 동해선과 서해선에서 철차시험운행이 진행되었으며 북남의 도로도 이어지고 금강산관광과도 실현되었다. 개성공업지구에서는 민족공동변영의 동음이 더욱 세차게 울려왔다.

북에서 《미녀옹단》이 왔으며 남녘겨레가 부산, 대구로 달려올 때 평양에서는 북과 남이 《아리랑》공연을 함께 보는 경이적인 현실이 펼쳐져 겨레에게 통일의 희망을 안겨주었다.

이 모든것은 우리 민족끼리의 장엄한 화폭이었다. 우리 민족끼리가 안아온 통일의 산현상이었다.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가 나뭇기던 6.15시대에 우리 민족은 분명 통일에 살았고 통일의 환희와 기쁨을 누구나 가슴주렁이게 체험했다.

그렇스록 우리 민족끼리의 대명제를 시대에 엮어주시고 이 여섯 글자에 담겨진 심원한 리념으로 자주통일의 넓은 앞길을 열어주시기 위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헌없는 로고와 애국애족의 넋이 어려우며 그 정성을 금할수 없게 한다.

우리 민족끼리는 위대한 장군님의 역센 통일의지이고 뜨거운 통일열정이었으며 거룩한 민족사랑이었다.

2000년 8월 평양을 방문한 남조선 언론사대표단이 장군님을 만나뵈은 자리에서 북의 만화영

가 그이를 《장군》으로 호칭했고 정계, 사회계, 언론계를 비롯한 각계층 인사들이 그이를 만나 뵈오려고 너도나도 평양행에 나서지 않았던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마련하시어 자주통일과 평화변영의 넓은 앞길을 열어주시기 위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은 민족의 통일운동사와 부강번영할 통일조국의 력사와 더불어 길이길이 빛나게 될 것이다.

지금 조국통일운동은 우리 민족끼리에 등을 돌리려고 분열과 대결의 옛시절을 되살리려는 내의반통일세력의 부당한 책동으로 하여 시련과 고통을 겪고있다.

반통일세력은 우리 민족끼리의 힘으로 활력있게 전진한 6.15통일시대를 《잃어버린 10년》으로, 화해와 단합의 북남관계를 그 누구에 의해 《일방적으로 끌려나온 관계》로 오도하면서 공동선리행을 전면 부정하고 그 거대한 의의와 생활력을 말살해보려고 비렬하게 돌아대고있다.

특히 현 남조선당국은 올해 정초부터 발표된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이 구현된 공화국의 공명정대한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제안들을 성의있게 받아들이지 않고 대대적으로 《위장평화공세》, 《대외선전용》, 《남남갈등유발용》으로 거부하는 한편 당사자들의 총정리, 투쟁판의 상징인 《대박》이라는 말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나라의 통일문제를 겨레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해결하지만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의 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시었다.

올해의 뜻깊은 신년사와 련이어 발표된 공화국 국방위원회의 중대제안과 공개서한에는 불신과 대결로 엮어진 분렬의 력사를 단호히 끝장내고 화해와 단합, 통일과 변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기 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애국의 의지와 웅대한 도량이 뜨겁게 맥박치고있다.

삼해에 들어와 복잡다단한 정세속에서도 북남사이에서 고위급 접촉이 진행되고 금강산에서 열린 가족, 친척상봉이 진행되었는 화해와 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에게 기쁨을 안겨주었다.

반통일세력의 대결광풍을 날려 보내며 우리 민족끼리의 통일열차를 힘차게 몰아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령도에서 겨레는 절세의 애국자의 위인상을 가슴속깊게 체험하고있으며 기어이 통일의 대문을 열어제길 애국일념을 더욱 불태우고있다.

우리 민족끼리는 7천만의 좌우명이며 통일의 귀중한 라침판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와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가 있어 자주통일위업의 승리는 확정적이며 삼천리에 통일축포가 터져오를 감격과 환희의 그날은 반드시 오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배영일

우 리 민 족 끼 리

주제89(2000)년 6월 14일 평양에서는 북남수뇌분들의 두번째 회담이 진행되었다.

북남공동선언문작성에서 무엇이 핵으로 되어야 하는가가 중요한 문제로 논의되고있을 때였다.

남측에서는 군사적통화설치, 경제공동위원회를 내오는 문제 등 구체적인 안을 담은 문건을 만들자고 제안하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이번에 내놓는 공동선언문에서는 구시대적 유물

을 청산한다는 의미에서 2000년대에 우리 민족끼리를 공동의 리념으로 하여 나라의 통일을 민족자주적으로 실현한다고 천명하자는것이라고 말씀하시었다.

우리 민족끼리!

6.15북남공동선언의 증핵인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은 이렇게 제시되게 되었다.

통속적이면서도 뜻이 깊고 누구나 접수할수 있는 그이의 말씀에 남조선당국자는 전적으로 동의하였다.

장군님께서 머리를 가בע게 저으시며 저 노을은 아침에 해를 때 들어와 보아도 저 장면이고 저녁에 해질 때 들어와 보아도 저 장면이라고 말씀하시었다.

사물은 보기듯, 생각하기듯이라는 뜻의 그이의 그 말씀에는 무슨 일이든 마음먹기듯이라는 의미가 짙게 깔려있었다.

온 겨레가 공동선언의 기치아래 마음과 마음들을 합쳐 힘차게 싸워나간다면 우리 민족의 앞길은 해돋는 아침과 같이 밝을것이라는 깊은 뜻을 한복의 그림을 통해 가장 적중한 표현으로 시사해주는 장군님의 유모아는 명담중의 명담이었다.

본사기자

북과 남, 해외의 우리 겨레가 민족자주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가야 한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우리 겨레에게 통일의 크나큰 신심과 락관을 안겨주고 민족자주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놓은 자주통일의 리정표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북남공동선언이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의지를 구현한 민족자주, 민족대단결의 선언이기때문이다.

조국통일은 우리 민족이 주체가 되어 실현하여야 할 민족자주위업이며 어느 특정한 계급이나 계층의 힘만으로 실현할수 없는 거족적위업이다. 따라서 나라의 통일문제는 마땅히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민족의 대단결로 풀어나가야 한다.

북남공동선언에서 밝히고있는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은 철저히 민족자주의 리념, 민족대단결의 리념이다. 이 리념에는 조국통일의 주체는 바로 다름아닌 우리 민족이라는 자각과 통일의 주체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가려는 만만한 의지, 사상과 제도, 신앙과 정견의 차이를 뛰어넘어 하나의 퍼즐, 하나의 민족으로서 온 겨레가 굳게 손잡고 단결할때 대한 사상이 담겨져있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 충실할 때

내의반통일세력의 도전과 방해책동을 물리치고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로 조국통일을 성과적으로 이룩해나갈수 있다. 우리 민족끼리야말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과 변영의 길을 밝혀주는 민족공동의 리념인것이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또한 나라의 통일문제해결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민족공동의 요구와 리에 맞게 풀어나갈수 있는 넓은 길을 밝혀주고있다.

6.15공동선언은 민족의 대단합으로 나라의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

발전시키는 문제, 사회문화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키는 문제 등 10.4선언에는 자주통일과 평화변영을 위한 제반 문제들이 폭넓게 반영되어있다.

역사적인 북남공동선언들이야말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변영을 이룩하기 위한 리념적기초와 근본원칙, 실현방도들을 명시한 북남관계발전의 초석이며 자주통일의 리정표인것이다.

조국의 자주통일의 리정표로서 북남공동선언들은 이미 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뚜렷이 확증

되었다.

우리 민족끼리의 통일합성이 온 삼천리를 진감하는 가운데 북과 남사이에는 다방면적인 대화와 접촉이 진행되었고 민족공동의 통일행사들이 성대히 진행되어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의 지를 내외에 힘있게 파시하였다. 군사분계선철폐를 끌어내리며 하늘길, 바다길, 땅길이 열려 북에서 남으로, 남에서 북으로 민족공동의 통일대화가 도도히 굽어지고 동, 서해선 철도와 도로가 이어지는것과 같은 사면도 일어나 민족화해와 단합을 촉진시켰다.

그러나 지금 남조선의 보수집권세력은 북남공동선언들의 역사적인 의의와 생활력을 거세말살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있다. 보수수당들은 《〈한〉반도신포로세스》요, 《통일대박론》이요, 《레즈선선언》이요 뭐요 하면서 저들의 비렬한 체제대결, 동족대결야망을 실현해보려고 갖은 발악을 다하고있다. 또한 동족을 말살하고 우리 민족의 삶의 보금자리를 핵침략속에 밀어던지려고 외세와 야합한 북침전쟁영입에 매달리고있다. 현 남조선 《정부》에 의해 북남관계는 북쪽으로 쏠릴수밖에 없으며 조선반도에는 전쟁의 무거운 구름이 짙게 깔리고 있다.

현실은 북남공동선언을 부정하고 동족대결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리는 반통일분렬주의세력의 책동을 짓부시지 않는 한 북남관계가 개선될수 없으며 통일은 더욱 리원해진다라는것을 웅변으로 실증하고있다.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조국의 자주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가 북에 살건 남에 살건 해외에 살건 북남공동선언고수리행을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조국통일의 리정표인 북남공동선언들을 철저히 고수, 리행함으로써 북남관계를 명실공히 우리 민족끼리의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키며 민족공동의 변영과 통일을 앞당겨야 할것이다.

김명성

북남공동선언은 자주통일의 리정표

승려한 통일운동의 힘과 의지

우리 민족끼리의 힘으로 삼천리강도 위에 통일강국을 가를 기어이 건설하도록 하시려는 것은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이다. 그이께서는 언명 하셨다. 우리는 조국통일의 앞길에 그 어떤 시련과 난관이 가로놓인다 하여도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삼천리강도 위에 통일되고 번영하는 강성국가를 기어이 일떠세우고야말것이다.

조국통일성업 실현을 락관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한 결심과 의지는 민족분열의 비극이 질게서 리어있는 판문점의 새겨진 그이의 발자취에서 력력히 읽을수 있다.

주 체 1 0 1 (2012)년 3월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판문점을 찾으신다.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아버지시령님의 친필비를 돌아보시면서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한평생 온갖 로고와 실험을 다 바쳐온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고귀한 생애와 업적을 회고 하시었다.

아버지장군님께서는 판문점에 무려 4차례나 나오시

었다고, 민족분열의 비극을 가시고 조국통일의 성업을 이룩하기 위한 력사적문건에 생애의 마지막필필함을 남기신 수령님의 애국애족의 숭고한 뜻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기 위해 판문점에 친필비를 모시도록 하시었다고 하신 그이께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필생의 념원을 기어이 실현하여 후대들에게 통일된 조국을 물려주도록 하실 의지를 가다듬으셨다.

은 겨레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판문점시찰을 통하여 분열의 비극을 하루빨리 끝장내고 조국통일의 새 아침을 기어이 안아 오시려는 그이의 확고부동한 통일의지를 가슴뜨겁게 느낄수 있었다.

열렬한 민족애를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숭고한 인덕으로 전 민족을 화해와 단합, 통일의 길로 이끄시는 민족대단결의 구성자이다.

세계평화연합총재 문선명 동포가 운명하였을 때 친히 그이의 령전에 화환을 보내시고 평양에서 추모행사도 열도록 하신 원수님께서는 그가 사망한지 1년이 되었을 때에는 다시금 추모의 말씀을 보내주시었다. 하기에 남조선의 종교인들을 비롯한 각계층 동포들은 《문선명총재는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위원장님을 하늘같은 도량과 포용력을 지니고 계시는 분이시라고 했다. 사망한 문선명총재를 내세워주시는 김정은원수님은 주석님과 위원장님의 도량과 포용력을 그대로 이어받으신 분이시다.》라고 칭송해마지 않았다.

민족단합과 통일을 위해 기울이시는 그이의 열렬한 민족애와 두터운 신의, 고결한 의리에 의해 지난해 전남조선 현대그룹 정몽헌회장 사망 10년이 되는것과 관련하여 금강산에서 추모식이 거행되었고 그이께서 보내신 구두친서도 전달되었다.

조국통일운동의 힘찬 전진을 위한 방략과 방도들을 명쾌하게 밝혀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는 오늘 통일을 열망하는 겨레의 발걸음을 힘차게 고무추동하고있다.

진정으로 나라의 통일을 원하고 민족의 평화번영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손잡고나갈것이며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책임적이고도 인내성있는 노력을 기울일것이라고 하신 원수님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통일과 관련한 력사적문건에 생애의 마지막필필을 남기신 20돛이 되는 올해에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을 받들어 조국통일운동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국면을 열어가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과업을 명시 하시었다.

조국통일의 리정표,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인 6.15북남공동선언리케시로 온 겨레를 불러일으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념원과 확고부동한 의지, 정력적인 령도가 있어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을 하나로 통일조국의 그날을 굳게 확신하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김강철

시 6월에 부르는 노래

김영일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내 가슴에 뜨겁게 안겨오는 영상
해마다 6월이 오면
더욱더 못건디게 그리워지는
승연한 영상이여

우리 민족끼리
내 가슴에 뜨겁게 안겨오는 영상
해마다 6월이 오면
더욱더 못건디게 그리워지는
승연한 영상이여

우리 겨레에게 통일6.15를 주신 장군님을 우리가 부르던 6월의 노래 뜻과 정 하나로 합쳐 리쳐던 통일의 노래
그 누구도 막을수 없고 호르는 세월도 지울수 없거니

6.15의 앞길을 가로막아나서며 동족대결에 미쳐날뛰는자들 손바닥으로 해빛 가리울수 없듯이 6월의 진리는 어둠에 물울수 없으리라
우리 민족끼리의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우리의 그날 그리며
겨레는 잊지 않으리라 6월의 환희
오늘도 매일도 통일의 그날까지
겨레가 부르고부르는 6월의 노래는
아, 장군님 못 잊는 흥모의 노래
우리 민족 하나되는 통일의 노래
여라

장군님 안아오신 6.15
그날의 걱정 그날의 환희는

시 말해보자 겨레여

김태룡

가슴을 터놓고
진실과 격정을 터놓을수 있는
한형제 한동포인 남녘의 겨레여
6월을 맞는 오늘 우리 말해보자
6.15, 6.15가 없이 살수 있는가

말해보자
가슴을 터놓고
진실과 격정을 터놓을수 있는
한형제 한동포인 남녘의 겨레여
6월을 맞는 오늘 우리 말해보자
6.15, 6.15가 없이 살수 있는가

갈라져 산 기나긴 분열세월
그 세월의 피눈물을 가져준 6.15

꿈에서나 그려보던 겨레가 사는 땅
꿈같이 밝아보는 환희를 주었다
오, 우리 민족끼리는

우리 대결의 총칼에 내맡길수 없노라
6.15를 잃으면
영영 통일을 이룰수 없고
6.15를 지켜내지 못하면
민족은 영영 둘로 갈라져야 하거니
숨줄같은 그 6.15를 잃고서는
겨레가 못살아 민족이 없어

다시 만날 때일을 두고
홍분으로 잠 못들던 그 밤을
우리 다시 눈물에 잠글수 없노라
맞부빈 가슴에 일어번지던
혈육의 정 뜨거운 동포애를

시 통일의 아침은 밝아오리라

김승림

강산엔 신록이 짙고
산과 들엔 꽃들이 만발하건만
내 마음은 1월
눈내리던 새해의 그날에 섰노라

《흙수통일》과 《체제통일》
그 대결중심으로
반통일분자들 그 아무리
《통일대박》, 《드레즈렌선언》
온갖 요설을 꾸며대고 지어내도

잇을수 없노라
조국통일의 앞길을 밝혀
원수님 하시던 신년사
우리 민족끼리 그 낫과 뜻으로
겨레의 가슴 불래워주던
원수님의 그 말씀들

겨레는 믿지 않는다
언제라도 실현될수 없는
그 낙두리 그 망상을
통일의 환희 이 강도에 가져올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일에
단합하고 나아가자

통일이 얼마나 소중한것이었던
우리 원수님
그리도 절절히 말씀하시었으랴
우리 민족끼리 립장에 확고히 서야
한단고
공동선언들을 성실히 리행해야 한
다고

우리 민족끼리!
그 뜻을 따르고 그 낫에 살면
통일의 새날이 온다는것은
겨레의 신념
절대로 흔들림이 없으리라
겨레의 이 신념은

한겨울의 장설도 얼음장도
다 녹이는 해빛같은 그이의 말씀
겨레는 가슴에 똑똑히 새겨안았
여라
우리 민족끼리만이 겨레가 살길이고
통일을 안아오는 길이라는것을

우리 민족끼리를 지켜주시고 빛내
주시는
우리의 원수님께서 계시어
6.15세상은 반드시 오리라
삼천리 이 강도엔
통일의 아침 밝아오리라

추억이 아름다운 인간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말이 있
다. 그러나 나는 아름다운 추
억때문만이 아니라 그것으로
하여 더욱 아름답게 살려는
각오가 있어 행복하다고 생
각한다.

나는 해마다 6월이 오면
6.15시대에 펼쳐졌던 격동과
환희의 사면들이 더욱더 되
새겨지고 부산아시아경기대
회 북측응원단의 한 성원이
되어 부산에서 보낸 10여일
간 한생애 잊지 못할 나날
들로 안겨오곤 한다.

사람의 한생애는 16일간이
란 어찌보면 짧은 순간에 불
과하다. 그러나 그 짧은 나
날에 나는 삼천리강도에 맥
맥히 넘쳐흐르는 민족의 념
을 보았으며 북과 남은 가
를래야 가를수 없는 하나의
민족임을 가슴뚝뚝이 절감하
였다.

2002년 9월 우리 응원단
은 《만경봉92》호를 타고
제14차 아시아경기대회가 열
리는 부산을 향해 떠났다.
부산땅에 발을 들여놓기 전
부터 100여척의 배에 통일이
를 띄우고 환영하는 시민운
동단체성원들, 대대포항구
에서 《환영 북측응원단》,
《반갑습니다》 등의 구호
를 들고 우리 응원단을 열렬
히 환영한 부산시민들, 만나
자마자 정이 들고 한평어리
가 된 남녘의 《아리랑응원
단》, 경기장마다에 메아리
친 《조국통일》, 《우리는

《우리는!》- 《하나다!》

하나다》의 함성, 정말이 모
든것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겨레만이 펼칠수 있는 감동
적인 화폭들이었다.

남녘인민들은 우리 응원단
성원들을 보고 《꽃미녀응원
단》이라고 하면서 경기에
나온 선수들보다 북녘의 미
녀들에게 더 관심을 쏟았다
고, 모두들 예쁘고 정이 가
북과 남사이의 정적경감등
으로 존재하던 경계심이 순간
에 사라졌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였다.

부산체류기간 있었던 하
나하나의 일들이 모두 인상
깊었지만 지금도 그때의 흥
분은 그대로 느껴지는것은
10월 9일 구덕주경기장에서
진행된 우리 선수들과 남조
선림파의 여자축경기였다.

북남축경기기가 진행되는
경기장에는 우리 응원단, 선
수단 360여명과 《한겨레남
북공동응원단》 1 000여명
을 포함하여 2만여명이 참가
하였으며 수천명의 군중들이
손에손에 든 통일기와 《우
리는 하나다》라는 글을 새
긴 응원소도구를 흔들면서
경기시작전부터 분위기를 고
조시켰다.

경기는 북과 남의 여자축
구선수들사이의 경기였지만

한 성원으로서 나라의 통일에
대해 다시금 자각하게 되
고 통일을 위해 작아도 무엇
이든 해야 하겠다는 각오로
마음이 달아오른 한다.

지금 북남관계는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의 동족대결
책동으로 하여 최대로 악화
되고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
를 위험천만한 정세가 조성
되고있다.

화해와 단합을 바라는 민
족의 지향과 요구를 외면하
고 《체제통일》망상에 사로
잡혀 동족대결책동에 집요하
게 매여달리는 남조선보수집
권세력의 반민족적, 반통일
적책동은 절대로 용서받을수
없는것이다.

은 겨레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가로막는 반통일세
력의 책동을 단호히 짓부셔
버리고 북과 남이 합의한
6.15북남공동선언을 철저히
리행해나갈 때 환희와 격정
으로 가득찼던 6.15시대를
되찾을수 있는것이다. 12년
전 부산땅에 지렸던 민족화
해와 단합의 성화가 삼천리
강산에 환화산처럼 타번지게
해야 한다.

나라의 통일을 바라는 민
족의 한 성원으로, 이 땅
의 평화를 기원하는 평범한
한 녀성으로서 12년전의 감
격을 소중히 안고 북과 남의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는 길
에 적은 힘이나마 바치려는
마음뿐이다.

국립연극단 김순영



북관대첩비는 임진 조국전쟁시기 정부군의병대가 함경도지방에 침입한 왜적을 격멸소탕하고 큰 승리를 이룩한것을 기념하여 세운 승전비이다. 북관대첩비는 높이 187cm, 너비 66cm, 두께 13cm이며 여기에 1,400여자의 글자가 새겨져있다.

정문부가 함경도 북평사(병마절도사의 보좌관격)로 있던 임진년(1592년)에 일본 침략자들은 20여만의 병력과 700여척의 함선을 끌고 불의에 우리 나라를 침공하였다. 그후 파죽지세로 북상한 일본군의 일부는 함경도지방에 까지 깊숙이 기어올랐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도란에 빠지고 흉악무도한 오랑캐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거대한 선혈이 강물이 되어 흐르는 비참함에 참을수 없었던 정부부는 의병을 일으

북 관 대 첩 비

키고 처음으로 진행한 장평 전투에서 왜군장수 다섯명을 포함하여 수많은 적군의 머리를 베는 전과를 올렸다.

이 승리를 계기로 7,000여 명으로 급속히 장성한 정부군의병대는 그 기세로 길주성전투, 립명전투, 쌍포전투, 단천전투에서 련전승하고 패주하는 적들을 백담령에서 격멸하는 대승리를 이룩함으로써 일본침략자들을 함경도지방에서 완전히 몰아냈다.

1708년 함경도 북평사로 있던 최창대의 발기조 임진조국전쟁시기 정부군의병대가 왜군을 통폐하게 섬멸한 길주목 립명에서 북관대첩비가 세워졌다. 비에는 왜적의 침입을 반대하여 용감한 의병들

이 적을 무자비하게 죽였으며 그 위력악에 적들은 낮을 잃고 북쪽방향은 평정되어 백성들이 편안히 농사짓게 되었다고 하면서 립명의 언덕 높이 비를 우뚝 세워 정부군의병대의 활동을 후세에 길이 전한다고 쓰여져있다.

북관대첩비는 정의를 사랑하고 불의를 반대하여 용감히 싸운 우리 선조들의 남다른 용감성과 애국심을 보여주는 승리의 상징으로 되어있다.

그 민족의 재보가 어느날 감쪽같이 없어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1906년 로일전쟁을 계기로 북관방에 기어든 일제는 야밤삼경에 달려들어 북관대첩비를 강탈해갔다. 그후 일제는 저들이 강탈해간 북

관대첩비를 군국주의 망령이 도사리고있는 야스쿠니진자의 어둡컴컴한 숲속에 숨겨 놓고 1이 넘는 커다란 돌로 짓눌러놓았었다.

일제에게 빼앗겼던 북관대첩비가 북과 남의 공동의 노력으로 립명땅에 다시 돌아오기까지는 한세기라는 세월이 흘렀다. 2006년 3월 23일 함경북도 김책시 립명리에서는 북관대첩비를 원상대로 다시 세우는 행사가 진행되었다.

실로 북관대첩비를 다시 찾은것은 6.15시대에 우리 민족이 거둔 또 하나의 《대첩》이며 임진년의 대첩과 오늘 《대첩》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위한 투쟁에서 겨레가 하나로 뭉쳐 싸우면 반드시 승리한다는것을 세상에 보여준 역사적장기이다.

본사기자



140여건의 우수한 발명 및 새 기술, 새 제품 전시

지적제품이라고 할 때 인간의 창조적인 정신로동에 의하여 이룩된 지식재산으로서 여기에는 발명권과 특허권을 받은 기술, 과학기술성, 창의고안, 기술비결 같은것이 포함된다.

과학기술은 강성국가건설을 추동하는 원동력이며 과학기술발전에 인민의 행복과 나라와 민족의 미래가 달려있다.

지식경제시대인 오늘날 지적제품류통사업을 잘하여야 과학기술과 생산을 보다 가깝게 밀착시키고 기술창조자와 수요자들, 기관, 기업소들사이의 련계를 긴밀히 하여 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해야 할수 있다.

최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발명총국에서는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지적제품들에 대한 보급과 교류, 류통사업을 더욱 활성화하여 경제강국건설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짧은 기간에 지적제품전시장을 훌륭히 꾸려놓고 문을 열었다.

새롭게 꾸려진 지적제품전시장에서는 발명 및 특허문헌검색, 특허기술자료번역봉사, 각종 체계 및 응용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봉사, 과학기술자료편집(발명등록신청문건작성포함)과 복사 및 인쇄봉사, 기술자문, 법률상담 등 여러가지 형태의 기술자료봉사를 진행하고있다.

이와 함께 지적제품류통을 위한 합의, 계약실무를 받고 등록하는 사업, 해당제품에 대한 위탁판매, 부분별 전시회, 기술발표회, 기술강습 등도 진행하고있다.

이곳 전시장에는 버모판비배판리에서 방음 및 방습효과를 높이는데 리용하는 기공성벽돌, 살림집방수에 쓰이는 염기성방수세멘트, 소결성이 큰 제철들을 령간용접할수 있는 무니켈랭간주철용접봉, 간단한 방식으로 증기생산량을 능동적으로 조절할수 있는 증기발생기를 비롯하여 나노합성촉매형공기정화기, 직류교전압종자처리기, 나노생물성장촉진기 등 농업, 건설, 석탄, 금속, 채취, 기계, 전기, 전자, 화학,

의약품, 건강식품, 생활필수품 등 여러 부문에서 선별된 140여건의 발명 및 새 기술, 새 제품들이 전시되어있다.

현물을 기본으로 하고 도해판, 소개책, 특허물 등 여러가지 형식으로 전시되어있는 지적제품들은 발명하는 현실에 맞게 수요가 높은 보다 새로운 제품들로 부단히 보충갱신되게 된다.

지적제품전시장이 훌륭히 꾸려짐으로써 국내에서 우수하게 평가되고 류통성이 높은 발명, 특허, 과학기술성과들이 신속히 소개전되고 수요자들과 련계를 지어 주어 지적제품에 대한 사회적인식을 보다 높여줄수 있게 되었다.

본사기자

개 성 고 추 장 (4)

장씨는 두 늙은이의 따뜻한 말에 마음이 한결 가라앉아 부지런히 주걱질을 하였다.

그날 밤 장씨는 자리에 누웠으나 잠을 들수가 없었다.

《어보, 할아버님 하신 말씀 들었지? 솔치가 구수하다고...》

근달이 장씨의 손을 잡으며 다정다정 말했다.

《저를 위안하자고 한 말씀이시와요.》

《모르는 소리. 아, 우리 할아버님이 직방치라는걸 몰라?》

장씨는 호- 하고 한숨을 내쉬었다. 글썽 저녁상에 가까스로 일어나 마주앉은 시할아버지는 웃으시며 아이적에 솔치를 제일 좋아했다고 그걸 말해서 맛있게 잡수신 것이었다.

《그대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창피했는지... 장씨는 밥을 태우면서까지 숙궁냥한걸 당당 만들어보지 않고서는

잠을 잘것 같지 못했다.

《어보, 날 좀 도와주시와요.》

장씨는 용단을 내려 일어나 앉았다.

《원대?》

《실날에 색다른 반찬을 올리자고 하나이다.》

《그것때문이라면 그만두겠소. 실속없고 가난한 집안의 일을 다 맡아 언제 한번 허릴 제대로 퍼보지 못하는 당신이 그만쯤 어른공대를 했으면 만족하지 무얼 더 하라겠소?》

《어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나이까? 효도는 가난을 탓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대 우리가 온전한 손발이 없어서 량반을 보란듯이 어른공대를 하지 못했잖나이까. 우린 어떻게 하나 할아버님의 입맛을 돌려드려야 하나이다.》

근달은 그만 안해의 절절한 말에 감격하여 장씨의 손을 꼭 잡았다.

《내 잘못 생각했소. 자, 무엇이든 말만 하오.》

밤은 깊어진만 장씨와 근달은 부엌문을 꼭 닫고 소리가 날새라 잘떡을 쳐서 길금가루를 뿌린 다음 한동안 절구질을 하다가 소금과 고추가루를 넣고 또 절구질을 하였다. 절구질을 하면 할수록 새빨간 빛이 우리나와 떡반죽은 보다 더 먹음직스러워졌다.

《어보, 근침이 도는군. 보나마나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반찬이 될거야.》

《제발 이것이 할아버님을 일으켜드릴수 있다면 한이 없겠나이.》

《이제 하늘이 당신 마음을 알아준다니.》

량주는 정답게 속삭이며 새빨간 떡반죽을 하얀 백항아리에 넣고 바람이 들새라 두들정을 꼭 맞추었다.

동침만 한 횡논이 소리없이 내려앉은 실날이 왔다. 온 마을이 어른들께 세배

를 드린다고 흥성이는 아침 김씨네 집에서 열한식구가 모두 안방에 모여들어 《할아버님, 백년을 장수하시고 백년을 또 앉아계십시오.》라는 인사가 있었고 이어 음식상이 차려졌다.

상우엔 비록 량반부자네 집에서처럼 육불이 없었다. 나 음식들은 하나같이 정갈하고 빛깔이 곱았다.

백성이 짙은 시할아버지는 머리를 끄떡이다가 상가운데에 놓인 하얀 접시위에 새빨간 반찬을 가리켰다.

《아가, 이걸 좀 보는것 같네.》

《에그 령감, 다섯아들을 거느린 중순엄마도 아직도 아가가 귀요? 꾹, 주책이 없잖나... 그건 중순엄마가 새로 만든 반찬이라우.》

《저 로친네 말이 많다. 어디 내 좀 맛볼까.》

시할아버지는 웃으며 늦저가락끝에 새빨간 반찬을 찍어 혀에 가져갔다.

《이제 보라. 달콤하고 매콤하고 짭짤하고 새콤한데다가 향기도 제법인데. 그렇기, 배우에 발라먹어볼까.》

시할아버지는 부루쌈을 먹듯 배우쌈을 먹고나서 《거,

글자는 과학과 문화 발전시키는 힘있는 무기, 필수적인 수단이다.

원래 글자는 사람들이 사상, 생각, 감정을 전달하기 위한 언어적인 기호로서 글말의 물질적인 수단으로 창조되었다.

글자가 창조되고 글말이 생겨남으로서 언어의 사회적기능은 비할바 없이 높아졌으며 특히 글자는 과학과 문화를 창조하고 보급하며 아름다운 풍습과 전통을 계승해나가는 필수적인 수단으로 되어 인류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조선인민이 창조한 세계의 자랑 《훈민정음》은 그 류례를 찾아보기 힘든 가장 우수한 글자이다.

《훈민정음》의 우수성은 첫째, 가장 발전된 글자형태인 지오식으로 된 음운글자로 만들어져있다는것이다.

오늘날 세계의 근 70억에 달하는 사람들이 사용하고있는 글자들을 류형별로 갈라보면 크게 한자나 크레타글자, 슈메르글자와 같은 의미글자와 일본글자나 기브로스글자, 마이글자와 같은 음절글자, 조선글자와 라틴글자,

세계의 자랑 《훈민정음》

그리스글자와 같은 음운글자로 갈라볼수 있다.

음운글자는 언어의 음운체계를 반영한 글자로서 불과 몇십개에 달하는 글자를 가지고 수십만개에 달하는 단어를 나타낼수 있는 우점을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글자발전에서 가장 높은 단계를 이루는 글자류형이다.

《훈민정음》의 우수성은 둘째로, 글자를 만든 원리가 독특하고 누구나 쉽게 배울수 있다는것이다.

지구상에 존재하고있는 글자들가운데 그 글자를 만든 사람들과 만든 원리가 정확히 밝혀져있는 글자는 오직 《훈민정음》 밖에 없다.

우리가 잘 알고있는바와 같이 《훈민정음》은 1444년 1월(음력으로 1443년 12월)에 당시 정인지와 성삼문, 박맹문, 신숙주를 비롯한 《언문정》(조선봉건왕조시기 글자를 연구한 기관)의 학자들에 의하여 만들어졌다.

《훈민정음》에서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과 작용원리를 본따서 만들었으며 모음은 하늘과 땅, 사람의 모양을 본따서 만들었다.

《훈민정음》의 우수성은 셋째로, 글자기술화에 가장 편리한 글자이라는것이다.

우선 글자기술화의 측면에서 볼 때 가장 우수한 글자는 글자의 개수가 가장 적은것이라고 볼수 있는데 여기에

서도 《훈민정음》은 세계적으로 으뜸이라고 할수 있다.

《훈민정음》은 글자의 개수가 모두 28자(그중 자음 17자, 모음 11자)밖에 안된다.

글자의 개수가 제일 적다고 하는 영어자모의 경우 비록 그것이 26자로 되어있다고는 하지만 대글자와 소글자로 구별하여 쓰기때문에 사실상 52개인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이것은 《훈민정음》이 영어글자의 거의 절반밖에 안된다는것을 말해준다. 그리고 오늘날 조선글자는 영어글자보

다 기술화에서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볼수 있다.

컴퓨터건설에서 모음은 오른손으로, 자음은 왼손으로 칠수 있는 글자는 세계적으로 오직 조선글자밖에 없다.

조선인민의 고유한 민족글자인 《훈민정음》은 그 과학성과 독창성, 합리성 등으로 하여 세계적으로도 높이 평가되어있다.

우선 언어학연구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최고라고 자처하는 어느 한 나라의 대학이 합리성과 과학성, 독창성, 실용성 등의 기준에 따라 세계의 모든 글자들에 대하여 점수를 매기었는데 여기에서 《훈민정음》은 단연 첫자리를 차지하였다.

또한 1998년부터 2002년 말까지 유네스코가 세계 2,900여개의 언어들가운데서 가장 훌륭한 글자를 고르는 연구사업을 진행하였는데 그중에서도 《훈민정음》이 최고의 평가를 받았다.

이처럼 조선인민이 창조한 《훈민정음》은 세계에 소리가 자랑할만한 한 훌륭한 글자이다.

김일성종합대학 우철연



6월의 문수물놀이장

삼천리금수강산이란 말의 유래

예로부터 우리 나라는 삼천리금수강산으로 세상에 널리 알려져있다.

여기서 삼천리는 우리 나라의 최북단 함경북도 온성군 풍서리로부터 최남단인 제주도의 마라도까지의 거리

가 2,700여리가 된다는데서 유래되었다.

우리 나라에는 그 어디에나 수려한 산과 넓고 비옥한 벌이 있으며 맑은 강과천과 무성한 산림이 많다.

또한 뚜렷한 4계절에 따르

는 경치는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다.

때문에 예로부터 우리 나라를 삼천리금수강산이라고 불렀다.

본사기자

물고기의 신선도를 알자면

특 튀어나왔으면 속이 변질해가고있는것이다.

◆ 질이 좋은 언 물고기는 표면이 깨끗하고 광택이 나며 고기와 뼈들이 갈라지

지 않고 잘 붙어있다. 따뜻한 물에 녹이면 신선할 때의 외형특징들을 가지고있다. 냄새를 맡아보면 다른 역한 냄새가 나지 않는다. 녹인 후의

◆ 조선8경 백두산, 평양, 금강산, 묘향산, 부천고원, 지리산, 해운대, 불국사

◆ 조선8승 경성의 온포, 황해남도의 몽골포, 한려수도, 부안의 변산, 부여, 가야산의 해인사계곡, 속리산, 한나산

본사기자

참말 기막차는구나, 아니, 왜 다들 쳐다보기만 하는거냐? 아서 먹으라는데.》 하고 즐겁게 소리쳤다.

《기막차지? 이 반찬 밥도 적 한가지.》

시할아버지가 꺾꺾 웃으며 계속 말하였다.

《그럼 내 우리 아가의 어린 마음을 담아 이름을 붙여 주겠다.》

이 반찬도 장은 장이렸다. 메주를 찜득에 담그었다가 찜물을 따라 내면 그대 바로 간장이고 간장뽕고 남은 걸 된장이라 하고 간장을 뽑지 않고 먹으면 무장이고 된장속에 깨를 치면 깨된장이요, 육불이를 넣으면 육장이라. 이 반찬은 콩이 아니고 참쌀과 고추가루로 만들었은 즉 참쌀고추장이라 함이 마땅할것이니라.》

방안이 떠나갈듯 갈채가 일었다.

《그럼 참쌀고추장을 집집들에 돌려라.》

《어머니 차려입은 김씨네 녀인들은 참쌀고추장이 가득한 백항아리를 안고 나섰다.》

그날 장씨는 허를 두르며 칭찬하는 동네아낙들에게 차근차근 참쌀고추장을 어떻게 만드는지 가르쳐주었다.

실날부기 김씨네 집에서 삼시 세끼 밥상위에 새빨간 참쌀고추장이 빠지지 않았다.

새빨간 고추장으로 입맛을 돋운 시할아버지는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활력으로 나섰다.



《여러날 먹어봐야 이렇구 저렇구 말할수 있겠지만 이 반찬은 보면 삼천리라고 칭하는 마음에 들어. 이 좋은 걸 어떻게 우리만 먹겠느냐.》

《아버님께서 이름을 불러 주시오이다.》

이번에는 시아버지가 맛장구를 쳤다.